

洪吟

홍
ㅇ

음

李 洪 志

차 례

苦其心志	2
마음고생	3
做人	4
사람 되기	5
覺者	8
각자(覺者)	9
誰敢捨去常人心	10
누가 과감히 속인 마음을 버릴 수 있으랴	11
願	12
소원	13
無存	16
무존(無存)	17
法輪大法	18
法輪大法(파룬파파)	19
容法	20
용법(容法)	21
乘正法船	22
정법의 배를 타고	23
無爲	24
무위(無爲)	25
學大法	26
대법 공부	27

圓明	28
원명(圓明)	29
求正法門	30
정법문을 구하다	31
得法	32
법을 얻다	33
緣	34
인연	35
了願	36
소원을 풀다	37
助法	38
법을 돕다	39
因果	40
인과(因果)	41
迷中修	42
미혹 속의 수련	43
實修	44
착실한 수련	45
佛法圓容	46
불법 원용(佛法圓容)	47
再度	48
재도(再度)	49
眞修	50
진수(眞修)	51
同化圓滿	52
동화 원만(同化圓滿)	53

大法破迷	56
대법이 미혹을 깨뜨리다	57
跳出三界	58
삼계(三界)를 벗어나다	59
遊懸空寺	60
현공사(懸空寺)를 거닐며	61
遊恒山	62
항산(恒山)을 거닐며	63
分明	64
분명함	65
遊南華寺	66
남화사(南華寺))를 거닐며	67
自修	68
스스로 수련	69
靜觀	70
조용히 바라보다	71
洪	72
넓음	73
主掌天地	74
주장천지(主掌天地)	75
人覺之分	76
사람과 각자의 구별	77
人妖之間	78
사람과 요괴 사이	79
高處不勝寒	80
높은 곳은 쓸쓸해	81

大覺	82
대각(大覺)	83
打工與修佛	84
품팔이와 부처수련	85
劫後	86
깁 후(劫後)	87
迷	88
미혹	89
魔變	92
괴이하게 변함	93
道中	96
도(道) 중에서	97
威德	100
위덕(威德)	101
佛主	102
불주(佛主)	103
法輪世界	104
法輪世界(파륜쓰제)	105
緣歸聖果	108
연귀성과(緣歸聖果)	109
遊響堂山寺	110
향당산사(嚮堂山寺)를 거닐며	111
登泰山	112
태산(泰山)에 올라	113
圓滿功成	116
원만 공성(圓滿功成)	117

太極	118
태극(太極)	119
苦度	120
고도(苦度)	121
變異	122
변이(變異)	123
廣度衆生	124
중생을 널리 제도하다	125
心明	126
심명(心明)	127
難中不亂	128
난중불난(難中不亂)	129
末法	130
말법(末法)	131
放下執著	132
집착을 내려놓자	133
有爲	134
유위(有爲)	135
遊岳飛廟	136
악비(岳飛) 묘를 거닐며	137
訪故裏	140
옛 고향을 찾아	141
遊清東陵	144
청나라 동릉(東陵)을 거닐며	145
善惡已明	146
선악이명(善惡已明)	147

遊日月潭	148
일월담(日月潭)을 거닐며	149
憶長安	150
장안(長安)을 회상하며	151
安心	152
안심(安心)	153
回首	154
회고	155
世界十惡	156
세계 십악(世界十惡)	157
遊雁門關	160
안문관(雁門關)을 거닐며	161
同化	164
동화(同化)	165
新生	166
신생(新生)	167
笑	168
웃음	169

洪 吟

홍
ㅇ

음

李 洪 志

苦其心志

圓滿得佛果 吃苦當成樂
勞身不算苦 修心最難過
關關都得闖 處處都是魔
百苦一齊降 看其如何活
吃得世上苦 出世是佛陀

一九七六年十二月十七日



마음고생

원만은 불과(佛果)를 얻나니
고생을 낙으로 삼노라
몸 고생은 고생이 아니나니
마음 수련이 가장 어렵도다
고비마다 반드시 넘어야 하는데
곳곳마다 마(魔)로다
백 가지 고생 한꺼번에 내리거니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겠노라
세상 고생 겪을 대로 겪나니
세간 벗어나면 부처로다

1976년 12월 17일



做人

爲名者氣恨終生
爲利者六親不識
爲情者自尋煩惱
苦相鬥造業一生



사람 되기

명예를 위하는 자 평생 화내고 원망하며
이익을 위하는 자 육친마저 몰라보고
정을 위하는 자 스스로 번뇌를 부르나니
고달픈 다툼에 일생토록 업을 빚는구나



不求名悠悠自得
不重利仁義之士
不動情清心寡欲
善修身積德一世

一九八六年七月十三日



명예를 구하지 않으니 유유자득이요
이익을 중히 여기지 않으니 인의지사요
정을 움직이지 않으니 청심과욕이라
참답게 수신(修身)하며 일생토록 덕을 쌓네

1986년 7월 13일



覺者

常人不知我
我在玄中坐
利慾中無我
百年後獨我

一九八七年 二月二日

註：在我沒有傳法之前自己獨修時所寫



각자(覺者)

속인은 나를 모르나니
나는 심오 속에 앉아 있도다
이익과 욕구 속에 나 없나니
백년 후에는 오로지 나로다

1987년 2월 2일

주해: 법을 전하기 전 단독수련 할 때 쓴 詩



誰敢捨去常人心

常人只想做神仙

玄妙後面有心酸

修心斷慾去執著

迷在難中恨青天

一九八八年八月九日



누가 과감히 속인 마음을 버릴 수 있으랴

속인은 오로지 신선이 되고자 하나
현묘한 뒷면에 서글픔 있네
마음 닳고 욕구 끊어 집착을 버려야 하건만
난 속에 미혹되어 푸른 하늘만 탓하누나

1988년 8월 9일



願

茫茫天地我看小
浩瀚蒼穹是誰造



소원

망망한 천지 내 보기에는 작거늘
끝없는 창궁은 누가 만드느냐



乾坤之外更無垠
爲了洪願傳大道

一九九零年一月一日



진곤 밖은 더욱 끝없나니
크나큰 소원 위해 대도를 전하노라

1990년 1월 1일



無存

生無所求
死不惜留
蕩盡妄念
佛不難修

一九九一年十月二十日



무존(無存)

살아 바라는 것 없고
죽어 애석할 것 없네
허망한 생각 다 떨쳐버리면
부처 수련 어렵지 않도다

1991년 10월 20일



法輪大法

功修有路心爲徑
大法無邊苦作舟

一九九二年七月二十四日



法輪大法(파룬따파)

공(功)을 수련하는 길은 마음이 지름길이라
대법은 끝없나니 고생을 배(舟)로 삼을지니라

1992년 7월 24일



容法

佛光普照
禮義圓明
共同精進
前程光明

一九九二年十二月二十七日



용 법(容法)

불광이 널리 비추나니
예의가 원만하고 밝도다
공동으로 정진하나니
앞길이 광명하도다

1992년 12월 27일



乘正法船

眞乎玄乎修乎
惚兮恍兮悟兮

一九九三年一月十七日



정법의 배를 타고

진짜인가 심오한가 수련하는가
흐리멍텅 어렵풋하나니 깨달을지니라

1993년 1월17일



無爲

三教修煉講無爲
用心不當卽有爲
專行善事還是爲
執著心去真無爲

一九九三年一月十七日



무위(無爲)

삼교(三敎) 수련은 무위를 중시하거니
마음 잘못 쓰면 곧 유위로다
착한 일만 한다 해도 역시 유위이거니
집착심을 제거해야 참된 무위로다

1993년 1월 17일



學大法

根基爲先天之條件
正悟爲上士之慧因
存真善忍心中有道
修法輪大法可圓滿

一九九三年二月十八日



대법 공부

근기는 선천적 조건이요

바른 깨달음은 상사의 슬기에 의해서라

眞善忍(전산런) 품은 마음에 도 있으니

法輪大法(파룬파파) 수련하면 원만할 것이로다

1993년 2월 18일



圓明

心懷真善忍
修己利與民
大法不離心
它年定超人

一九九四年二月二十八日



원명(圓明)

마음에 眞善忍(眞善忍) 품었나니
자신의 수련은 백성에게도 이롭도다
대법이 마음을 떠나지 않거니
언젠가는 반드시 초인이 되리라

1994년 2월 28일



求正法門

功能本小術
大法是根本

一九九四年四月二日



정법문을 구하다

공능은 본디 작은 재간이요
대법만이 근본이로다

1994년 4월 2일



得法

真修大法
唯此爲大
同化大法
它年必成

一九九四年七月七日



법을 얻다

진정으로 대법을 수련하나니
오로지 이것만이 큰 일로세
대법에 동화하나니
언젠가는 기필코 성취하리라

1994년 7월 7일



緣

大覺心更明
得法世間行
悠悠數千載
緣到法已成

一九九四年八月二十七日



인연

크게 깨달아 마음 더욱 밝나니
법을 얻어 세간에서 행하도다
유유한 수천 년
인연 닿자 법은 곧 이뤄지는도다

1994년 8월 27일



了願

同心來世間
得法已在先
它日飛天去
自在法無邊

一九九四年八月二十七日



소원을 풀다

한 마음으로 세상에 내려와
법 이미 얻었구나
훗날 하늘로 날아가면
끝없는 법 속에서 유유자적하리라

1994년 8월 27일



助法

發心度衆生
助師世間行
協吾轉法輪
法成天地行

一九九四年八月二十八日



법을 돕다

중생을 제도하리라 품은 마음
스승을 도와 세상에서 행하네
나를 도와 法輪(파륜)을 돌리나니
법(法)을 이루어 천지간에 행하네

1994년 8월 28일



因果

非是修行路上苦
生生世世業力阻
橫心消業修心性
永得人身是佛祖

一九九四年九月十五日



인과(因果)

수련의 길에 고생 있음이 아니라
생생세세 업력이 가로막음이로다
마음 굳혀 소업하고 心性(썸썸) 수련하리니
영원한 사람몸 얻어야 부처로다

1994년 9월 15일



迷中修

常人難知修煉苦
爭爭鬥鬥當作福
修得執著無一漏
苦去甘來是真福

一九九四年九月十五日



미혹 속의 수련

수련의 고달픔 속인은 알기 어려워
싸우고 다툼을 복으로 삼는구나
집착을 남김없이 수련하면
고진감래라 진짜 복이로다

1994년 9월 15일



實修

學法得法
比學比修
事事對照
做到是修

一九九四年十月七日



착실한 수련

법을 배우고 법을 얻어
배움을 견주고 수련을 견주나니
일마다 대조하여
해 내어야 수련이로다

1994년 10월 7일



佛法圓容

廣傳大法
度人出五行
恒心修煉
圓滿超三界

一九九四年十月十五日



불법 원용(佛法圓容)

대법을 널리 전하나니
사람을 제도하여 오행을 벗어나네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련하나니
원만을 이뤄 삼계를 벗어나는도다

1994년 10월 15일



再度

法輪常轉度衆生
學法得法修心性
末法之時輪再轉
有緣之士心法明

一九九四年十二月二十七日



재도(再度)

法輪(파륜)이 항상 돌며 중생제도하나니
법을 배우고 법을 얻어 心性(썌썌) 수련하누나
말법시에 바퀴 또 돌리나니
인연 있는 사람 심법(心法)이 밝으리라

1994년 12월 27일



真修

心存真善忍
法輪大法成
時時修心性
圓滿妙無窮

一九九四年十二月二十七日



진수(眞修)

마음에 眞善忍(전산런) 품었나니
法輪大法(파룬따파) 이뤄지리라
시시각각 心性(썬씽) 수련하나니
원만은 묘하기 무궁하여라

1994년 12월 27일



同化圓滿

乾坤茫茫
一輪金光
覺者下世
天地同向



동화 원만(同化圓滿)

진곤은 망망한데

일륜(一輪)이 금빛 뿌리네

각자(覺者)가 세상에 내려오나니

천지가 함께 향하도다



宇宙朗朗
同化法光
圓滿飛升
同回天堂

一九九四年十二月三十一日



우주는 맑고 맑아
법광에 동화되네
원만하여 날아갈 때
함께 천당으로 돌아가리라

1994년 12월 31일



大法破迷

悠悠萬事過眼煙雲

迷住常人心

茫茫天地爲何而生

難倒衆生智

一九九五年一月二十七日



대법이 미혹을 깨뜨리다

유유한 만사는 눈앞 지나가는 연기구름
속인의 마음을 미혹케 하는도다
망망한 천지는 어찌하여 생겼는고
중생의 지혜를 무력케 하는도다

1995년 1월 27일



跳出三界

不記常人苦樂
乃修煉者
不執於世間得失
羅漢也

一九九五年五月



삼계(三界)를 벗어나다

속인의 고락 생각하지 않음이

수련자요

세상득실 집착하지 않음이

나한이로다

1995년 5월



遊懸空寺

百丈山崖寺中懸
洪傳大法難得聞
今生重遊古崖寺
它日法正萬寺傳

一九九五年六月十一日



현공사(懸空寺)를 거닐며

백장 절벽에 절(寺)이 걸려 있는가
대법 널리 전하느라 한가하지 않았다네
금생에 절벽 옛 절 다시 거니나니
법이 올발라 훗날 많은 절에 전해지리라

1995년 6월 11일



遊恒山

山恒雲嶺道何在
古觀悠悠遊客來
常人不知玄中妙
利用古廟發黑財

一九九五年六月十一日



항산(恒山)을 거닐며

구름 걸린 산마루 그대론데 도는 어디 있느냐
옛 도관에는 유유히 유람객 오누나
속인은 심오 속의 묘함을 몰라
옛 사찰 이용하여 검은 돈만 버누나

1995년 6월 11일



分明

佛來世中行
常人迷不醒
毒者甚害佛
善惡已分明

一九九五年七月二十六日



분명함

부처님 세상에 오셔서 행하나
속인은 미혹되어 깨어나지 못하누나
독한 자 부처마저 해치려하거니
선악은 이미 분명하도다

1995년 7월 26일



遊南華寺

佛門淨地難清靜
魔道邪心亂世行
越是名勝魔越多
人雜叫賣鞭炮鳴

一九九五年八月十五日



남화사(南華寺)를 거닐며

불문 깨끗한 곳도 청정하기 어렵나니
마도사심(魔道邪心) 난세를 횡행하네
명승일수록 마 더욱 많아
잡상인 북적북적 폭죽소리 요란하네

1995년 8월 15일



自修

大法洪揚
幾人能得
世間繁事重重
百忙之間可自修
它日煙雲一過
方知真道已得

一九九五年十月六日



스스로 수련

대법이 널리 전해지나
몇몇이나 얻을쏘나
세상 번거로운 일 쌓이고 쌓였으나
바쁜 틈에도 스스로 수련할 수 있으리로다
훗날 연기구름 걷히고 나면
그때서야 진짜 도 이미 얻었음을 알리로다

1995년 10월 6일



靜觀

靜修閒來看神仙
各顯神通千百年
人心魔變世不同
衆神不度待劫完

一九九五年十月十六日



조용히 바라보다

조용히 수련하다 신선을 보노라니
제각각 신통 나타냄이 천백 년이로세
인심이 괴이하게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
못 신은 제도하지 않고 겁난 끝나기를 기다리네

1995년 10월 16일



洪

蒼穹無限遠
移念到眼前
乾坤無限大
法輪天地旋

一九九五年十一月九日



넓 음

창궁 무한히 떠나
생각 움직이니 눈앞에 다가오고
건곤 무한히 크나
法輪(파륜)은 천지에 돌고 있네

1995년 11월 9일



主掌天地

天之大天上有天
同有日月層層滿蒼宇
地之廣有天有地
共生萬物芸芸遍乾坤

一九九五年十一月十日



주장천지(主掌天地)

천지가 크기로 하늘 위에 하늘 있고
일월이 함께 있어 층층우주에 가득 찼네
땅이 넓기로 하늘 있고 땅 있고
만물 함께 생겨 건곤에 수없이 퍼져 있네

1995년 11월 10일



人覺之分

何爲人 情慾滿身

何爲神 人心無存

何爲佛 善德巨在

何爲道 清靜真人

一九九五年十一月十日



사람과 각자의 구별

무엇이 사람인고	온몸에 정욕이로다
무엇이 신인고	사람마음이 없도다
무엇이 부처인고	선과 덕이 거대하도다
무엇이 도인고	청정한 진인이로다

1995년 11월 10일



人妖之間

狐黃白柳亂世間
烏煙瘴氣跳大仙
無師無修稱大師
癲癲狂狂二十年

一九九五年十一月十一日



사람과 요괴 사이

여우 족제비 뱀 귀신 세상을 어지럽히고
난잡하게 곳을 하네
스승 없이 수련 없이 대사라 칭하며
이십년이나 미쳐 날뛰었네

1995년 11월 11일



高處不勝寒

操盡人間事
勞心天上苦
有言訴於誰
更寒在高處

一九九五年十一月十一日



높은 곳은 쓸쓸해

인간의 일에 속 태울 대로 태우고
하늘의 고생에 마음 쓸 대로 쓰네
할 말 있으되 님에게 하소연하라
높은 곳은 더욱 쓸쓸하기만 하네

1995년 11월 11일



大覺

歷盡萬般苦
兩腳踏千魔
立掌乾坤震
橫空立巨佛

一九九五年十一月十二日



대각(大覺)

온갖 고생 다 겪고
두 발로 많은 마귀를 밟고 섰노라
입장(立掌)하니 건곤이 진동하고
거대한 부처 하늘에 우뚝 섰노라

1995년 11월 12일



打工與修佛

佛教傳戒二千五
名利先去再修苦
今日和尚發工資
上班還有工作服

一九九五年十二月二十五日



품팔이와 부처수련

불교 계(戒) 전한 지 이천오백 년
명리 먼저 제거하고 또 고생스레 수련하네
오늘날 화상은 노임을 받고
출근하면 작업복도 있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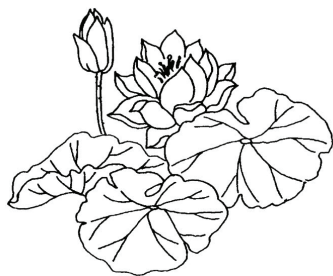
1995년 12월 25일



劫後

絕微絕洪敗物平
洪微十方看蒼穹
天清體透乾坤正
兆劫已過宙宇明

一九九六年一月二日



겁 후(劫後)

극미에서 극대까지 부패된 물체를 평정하고
홍대하고 미시한 시방에서 창궁을 보노라
하늘은 맑디맑고 건곤은 바르나니
조겁(兆劫)이 이미 지나 우주가 밝구나

1996년 1월 2일



迷

芸芸衆生滿蒼宇
層層有天皆有地
奇景妙無窮
世人迷不醒



미혹

온갖 중생 우주에 가득하고
층층이 하늘 있고 땅 있네
기이한 광경 묘하기 그지없으나
세상사람 미혹되어 깨어나지 못하네



想見談何易
修行如蹬梯
破迷在高處
壯觀妙難訴

一九九六年一月三日



보려고 하나 어찌 말처럼 쉬우랴
수행은 사닥다리 오르기와 같도다
미혹을 깨뜨리고 높은 곳에 있으니
장관(壯觀)의 묘함 말로 하기 어렵구나

1996년 1월 3일



魔變

天象大變

世人無善念

人心失控魔性顯

天災人禍憂怨



괴이하게 변함

천상이 크게 변하여
세상사람 착한 생각 없구나
사람마음 통제 잃어 마성이 드러나니
천재인화라 근심과 원망이네



人人相見如敵
事事都難如意
世人怎知何故
修道者可知迷

一九九六年一月四日



사람마다 서로 적을 보듯 하고
일마다 뜻대로 되기 어렵구나
세상사람 그 까닭 어찌 알리요
수도자만 미혹을 알 수 있도다

1996년 1월 4일



道中

心不在焉
與世無爭
視而不見
不迷不惑
聽而不聞
難亂其心



도(道) 중에서

마음에 두지 않으니
세상과 다툼 것 없도다
보아도 보지 못한 듯이 하니
미혹되지 않는도다
들어도 듣지 못한 듯이 하니
그 마음 혼란하지 않도다



食而不味
口斷執著
做而不求
常居道中
靜而不思
玄妙可見

一九九六年一月四日



먹어도 음미하지 않으니
입의 집착 없도다
하여도 구하지 않으니
늘 도(道) 중에 있도다
고요하되 생각지 않으니
현묘함을 알 수 있도다

1996년 1월 4일



威德

大法不離身
心存真善忍
世間大羅漢
神鬼懼十分

一九九六年一月六日



위덕(威德)

대법이 몸을 떠나지 않으니
마음에 眞善忍(전산런) 있네
세간의 대나한(大羅漢)
신도 귀신도 몹시 두려워하네

1996년 1월 6일



佛主

誰知天地大
銀河在腳下
乾坤有多遠
轉輪手中拿

一九九六年一月六日



불주(佛主)

누가 알리요 천지의 크기를
은하가 발아래 있구나
전곤이 얼마나 멀리 있든지
전륜은 손 안에 있구나

1996년 1월 6일



法輪世界

美妙窮盡語難訴
光彩萬千耀雙目



法輪世界(파룬쓰제)

미묘하기 그지없어 형언키 어렵나니
천만갈래 찬란한 빛 눈이 부서라



佛國聖地福壽全 法輪世界在高處

一九九六年一月二十三日



불국성지는 수복(福壽)을 갖추었나니
法輪世界(파룬쓰제)는 높은 곳에 있도다

1996년 1월 23일



緣歸聖果

尋師幾多年
一朝親得見
得法往回修
圓滿隨師還

一九九六年一月二十三日



연귀성과(緣歸聖果)

사부님 찾은 지 몇몇 해인가
하루아침 친히 뵈옵게 되었구나
법 얻어 되돌아 수련하나니
원만하여 사부님 따라 돌아가리라

1996년 1월 23일



遊響堂山寺

日月輪流轉
乾坤是轉輪
拈指二百年
響堂舊無存

一九九六年三月六日



향당산사(響堂山寺)를 거닐며

일월(日月)이 번갈아 도나니
건곤은 돌아가는 바퀴라네
손꼽아 해어보니 이백 년이라
향당의 옛 모습 간 데 없구나

1996년 3월 6일



登泰山

攀上高階千尺路
盤回立陡難起步
回首如看修正法
停於半天難得度



태산(泰山)에 올라

높은 계단 천 척 길을 오르나니
가파른 굽이굽이 발걸음이 더디네
고개를 돌리니 마치 정법수련을 보는 듯
반공중에 멈추면 제도받기 어렵도다



恒心舉足萬斤腿
忍苦精進去執著
大法弟子千百萬
功成圓滿在高處

一九九六年四月十五日



한결같은 마음으로 만근다리 옮기나니
괴로움을 참고 정진하며 집착을 버리네
천백만 대법제자
공성원만하여 높은 곳에 있도다

1996년 4월 15일



圓滿功成

修去名利情
圓滿上蒼穹
慈悲看世界
方從迷中醒

一九九六年四月二十一日



원만 공성(圓滿功成)

명리정(名利情) 닦아버리고
원만하여 창궁에 오르네
자비로 세계를 보나니
그제야 미혹 속에서 깨어나네

1996년 4월 21일



太極

真人蓋世張三豐
大道無敵天地行
後世爲名亂拳法
改吾太極壞吾名

一九九六年七月一日



태극(太極)

세상의 으뜸 진인 장삼풍(張三豐)
대도무적이라 천지에서 행하네
후세사람 명예 위해 권법을 난잡케 하나니
나의 태극을 고치고 내 이름을 더럽히누나

1996년 7월 1일



苦度

危難來前駕法船
億萬艱險重重攔
支離破碎載乾坤
一夢萬年終靠岸

一九九六年九月二十三日



고도(苦度)

재난이 오기 전에 법선(法船)을 몰고 오나니
억만 험난함이 첩첩이 막아서누나
산산조각 건곤을 싣고
만년꿈 꾸며 마침내 기슭에 닿네

1996년 9월 23일



變異

陰陽倒懸
世人心變
鬼獸遍地
人離道遠

一九九六年九月二十六日



변이(變異)

음양이 뒤바뀌어
세상사람 마음 변했구나
귀신과 짐승 온 누리에 퍼져 있고
사람은 도(道)를 멀리 떠났구나

1996년 9월 26일



廣度衆生

放下常人心
得法卽是神
跳出三界外
登天乘佛身

一九九六年十月十六日



중생을 널리 제도하다

속인의 마음 내려놓고

법(法) 얻으면 신(神)이로다

삼계를 벗어나

하늘에 올라 부처의 몸으로 타고나도다

1996년 10월 16일



心明

爲師洪法度衆生
四海取經法船蹬
十惡毒世傳大法
轉動法輪乾坤正

一九九六年十月十六日

於亞特蘭大



심명(心明)

사부 법 널리 전해 중생제도 하나니
온 천하에서 경(經) 얻어 법선에 오르네
십악독세에서 대법(大法)을 전하고
法輪(파륜)을 돌리니 건곤이 바르도다

1996년 10월 16일

애틀란타에서



難中不亂

正法傳

難上加難

萬魔攔

險中有險

一九九六年十二月二十二日



난중불난(難中不亂)

정법 전(傳)함은
어렵고도 어렵구나
만마(萬魔)가 가로막나니
힘난 속에 힘난이 있구나

1996년 12월 22일



末法

世人不仁
神也不神
人間無道
正念何存

一九九六年十二月二十二日



말 법(末法)

세상사람 어질지 아니하고
신(神) 또한 신통치 못하며
인간세상 도(道) 없으매
정념이 어찌 있을쏘냐

1996년 12월 22일



放下執著

世間人都迷
執著名與利
古人誠而善
心靜福壽齊

一九九六年十二月二十五日



집착을 내려놓자

세상사람 모두 미혹되어
명리에 집착하누나
옛사람 성실하고 착하여
마음 고요하고 수복을 갖추었네

1996년 12월 25일



有爲

建廟拜神事真忙
豈知有爲空一場
愚迷妄想西天路
瞎摸夜走撈月亮

一九九七年三月二十八日



유위(有爲)

절을 짓고 신을 모시느라 정말 다망하지만
유위란 한낱 헛된 노릇임을 어찌 알리요
어리석고 미혹되어 서천(西天) 길 망상하나니
더듬더듬 밤길에 달을 건지고 있네

1997년 3월 28일



遊岳飛廟

悲壯歷史流水去
浩氣忠魂留世間



악비(岳飛) 묘를 거닐며

비장한 역사는 유수처럼 흘러가고
호기충혼만 세상에 남겼구나



千古遺廟酸心處
只有丹心照後人

一九九七年九月十一日

於湯陰



천고의 옛 묘 마음 쓰린 곳
오로지 단심(丹心)만이 후세 사람 비추네

1997년 9월 11일

탕음에서



訪故裏

秋雨綿似淚
涕涕酸心肺
鄉裏無故人
家莊幾度廢
來去八百秋



옛 고향을 찾아

가을비 줄줄 눈물인 듯
방울방울 서글프게 폐부를 적시네
마을엔 옛 사람 찾을 길 없고
장원은 몇 번이나 폐해졌던가
오고 감이 팔백 추(秋)로고



誰知吾又誰
低頭幾炷香
煙向故人飛
回身心願了
再來度衆歸

一九九七年九月十一日

於岳飛故里



내가 또 뉘인지 누가 알리요
머리 숙여 향 몇 대 사르나니
연기는 옛사람 향해 날아가누나
돌아와 소원을 풀었나니
다시 와 중생 제도하여 돌아가노라

1997년 9월 11일

岳飛 고향에서



遊清東陵

三百歲月似水流
舊殿荒冢滿目秋
誰知今日又來世
它日法正萬古留

一九九七年十月二十六日

於康熙陵



청나라 동릉(東陵)을 거닐며

삼백년 세월 물처럼 흘러

옛 궁전 황폐한 무덤 모두 스산하구나

오늘 또 세상에 옴을 그 뉘가 알리요

훗날에 법 바로잡아 만고에 남기리라

1997년 10월 26일

강희 능에서



善惡已明

衆生魔變災無窮
大法救度亂世中
正邪不分謗天法
十惡之徒等秋風

一九九七年十一月十五日



선악이명(善惡已明)

중생은 괴이하게 변하여 재난이 끝없는데
대법이 난세 중에서 구도를 하네
정사(正邪) 분별 앓고 천법(天法)을 비방하나니
십악한 자를 기다리는 것은 추풍뿐일세

1997년 11월15일



遊日月潭

一潭明湖水
煙霞映幾輝
身在亂世中
難得獨自美

一九九七年十一月十七日



일월담(日月潭)을 거닐며

맑은 호수에

노을빛 아름답게 비껴드누나

몸은 난세 속에 있나니

홀로 아름답기 참으로 어렵도다

1997년 11월 17일



憶長安

秦川山水變
長安土下存
盛世天朝去
轉眼千百春
何處尋太宗
大法度唐人

一九九七年十一月二十二日



장안(長安)을 회상하며

진나라 산천은 변하였고
장안은 흙 속에 묻혔구나
성세왕조는 가버렸고
눈 깜박할 사이 수많은 봄이 지나갔구나
어디에서 태종을 찾으리요
대법은 당나라 사람을 제도하고 있도다

1997년 11월 22일



安心

緣已結
法在修
多看書
圓滿近

一九九八年一月二十七日



안심(安心)

인연 이미 맺어
법을 수련하고 있나니
책을 많이 볼지니라
원만이 가깝도다

1998년 1월 27일



回首

悠悠萬古事
造就迷中人
誰言智慧大
情中舞乾坤

一九九八年二月十九日



회고

유유한 만고의 일
미혹 속의 사람을 길러왔도다
그 누가 지혜 크다고 말하는가
정(情) 속에서 진곤을 희롱할 뿐이네

1998년 2월 19일



世界十惡

人無善念 人人爲敵
破壞傳統 文化頹廢
同性慾亂 心暗魔變
興賭興毒 隨心所欲
開放性亂 導向邪惡



세계 십악(世界十惡)

사람이 착한 생각 없으니 사람마다 적이로다
전통을 파괴하니 문화는 퇴폐 되누나
동성이 난잡하니 마음이 어둡고 괴이하게 변했도다
도박을 즐기고 마약을 즐기니 제멋대로라
성이 개방되어 문란하니 사악한 데로 끌고 가누나



黑幫亂黨 政匪一家
自主亂民 逆天叛道
迷信科學 變異人類
吹崇暴力 好勇鬥狠
宗教邪變 錢客政客

一九九八年七月七日



갱단에 난당이라 정당과 도적이 한 무리로다
스스로 백성을 혼란케 하니 역천반도(逆天叛道)로다
과학을 맹신하니 변이된 인류로다
폭력을 숭배하니 남을 이기려고 악착같이 경쟁하네
종교는 사악해져 돈벌이꾼이요 정치꾼이로다

1998년 7월 7일



遊雁門關

踏上雁門關
隱隱胸內翻
千年古道在
關中無故煙



안문관(雁門關)을 거닐며

안문관(雁門關)에 들어서니

가슴 은근히 설레누나

천 년 옛길은 그대론데

관중(關中)에는 옛 모습 없어라



延昭揮馬去
風雲逝一千
舉目望關下
大法在中原

一九九八年八月十日

於雁門關



연소(延昭)는 말 달려 가고
풍운(風雲)은 흘러간 지 천 년
눈을 들어 관내를 바라보니
대법은 중원에 있구나

1998년 8월 10일
안문관에서서



同化

經修其心
功煉其身
它日圓滿
真善忍存

一九九二年十一月十八日

一九九八年八月修改



동화(同化)

경(經)은 마음을 닦고
공(功)은 몸을 연마하네
훗날 원만하여
眞善忍(전산린)이 함께하리라

1992년 11월 18일

1998년 8월 수개



新生

正法傳
萬魔攔
度衆生
觀念轉
敗物滅
光明顯

一九九八年九月七日



신 생(新生)

정법을 전하니
만마가 가로막네
중생을 제도하니
관념이 바뀌고
부패된 물체 없애니
광명이 나타나네

1998년 9월 7일



笑

我笑 衆生覺悟

我笑 大法開傳

我笑 渡船起航

我笑 衆生有望

一九九八年十一月十六日



웃음

나는 웃는다 중생이 깨달으니
나는 웃는다 대법이 전해지니
나는 웃는다 배가 출항하니
나는 웃는다 중생이 희망 있으니

1998년 11월 16일

